



도심 곳곳 힐링공간 환경이 쾌적해진다 광양이 상쾌해진다

市, 시민이 행복한 '환경복지도시' 조성 심혈

광양시가 깨끗한 환경의 도시로 거듭난다. 또 시민들이 맘 놓고 살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도 조성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광양시는 12일 "기후변화와 경제성장 가속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복지도시'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환경적으로 편안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및 환경복지도시 건설로 시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대기환경 감시시스템을 본격 시행해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미세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풍속예보제와 함께 풍속기준 이상시 작업 중지 등을 실시하고, 대기환경 감시 시스템을 활용한 환경관리 문자전송 등 IT(정보통신기술)를 이용해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수생태계 전전성 회복을 위해서도 생태

대기 환경 감시시스템 본격 시행... 벽면 녹화사업 확대 마동 생태공원 내년 조성 등 도심 속 쉼터 만들기 박차

하천 복원과 비점오염원(NPS) 저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올해는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2단계 사업을 평가한다.

또 3단계 시행계획을 수립해 2016년부터 ▲육곡천 생태하천 복원(2016년 완공) ▲비점오염원 저감 장내 유수지 저류시설(2400m) 설치(2016년 완공)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 예방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한다.

올해 50톤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신청을 기피하는 저소득층 지붕개량 사업도 연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사회 구축=광양시는 구조물의 유휴공간의 벽면 녹화사업(5개소)을 오는 2016년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추진한다.

공원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중마 금호 해상공원 해상 보도교량과 친수공간(1만3375㎡), 마동저수지 생태체험장, 관찰로 등(12만6904㎡) 생태공원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광양읍과 동 지역의 1만6178개 소 단독 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거점수거에서 세대별 전용용기 문전 배출 및 수거방식으로 전환한다. 올해 6월부터 시범운영한 후 10월부터 전면 시행해 시민 편의 제공 및 재활용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활용 장터인 '광양 보물섬'(6개소) 사업대상지 6개소를 이달 말까지 공모를 통해 확정 후 3월부터 상설 운영하고, 10월에는 재활용 나눔장터 경진대회를 연다.

정현복 시장은 "마동 생태공원이 내년 말 조성되면 그동안 빈약했던 도심속 쉼터로써 어린이·가족들이 쉴 수 있는 정서적 힐링 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면서 "시민이 행복한 환경복지도시 조성에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감도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신규도입에 따른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저탄소 녹색생활 자발적 실천 유도과 탄소 포인트제를 1800여 세대에서 2만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생활의 다양성 회복과 시민들의 친수·여가 공간 제공을 위해 백운산 국립



중마 금호 해상공원 해상보도교량 조감도



옥상 녹화사업

'누런 운수' 원인 규명 공동조사단 만든다

민·관·학계 11명으로 구성

그동안 논란이 됐던 광양시내 아파트 '누런 운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공동 조사단이 구성된다.

광양시는 지난 11일 '누런 운수' 발생 원인을 규명한 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학계 관계자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동조사단은 박준승 시 수도과장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과 수질·급속전문가, 환경단체, 공동주택관리자, 주민대표 등 11명이 참여한다. 13일 본회의를 갖고 조사단 공식 명칭과 조사방법, 절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준승 수도과장은 "시민·환경단체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게 됐다"며 "조사단은 관계 전문가

들과 함께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광양시의 대응이 늦었지만 원인규명을 위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다행"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모여 확실하게 우려를 해소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도물을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시내 아파트 13개 단지(건립 5년 이하)에서 수년째 운수 사용중 녹물이 나와 광양시가 올해 초 일부 아파트 수돗물과 운수 등에 대해 중급속 검사를 한 결과 운수와 대위된 후 일정 기간 수돗물이나 텀탱크에 머물러 있었던 물에서 기준치의 최고 77배에 달하는 망간,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제철, 백운아트홀서 '7080 영화컬렉션'

14~22일 9편 상영

광양제철소(소장 안동일)가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설 연휴기간 포함) 백운아트홀에서 포스코 패밀리와 지역민들을 위해 '7080 영화컬렉션'을 마련한다.

이번 영화는 40~50대 장년층에 맞춰 당시를 추억할 수 있도록 '추억 속으로 떠나'는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주제로 상영된다.

상영작은 친구, 졸업, 영웅본색, 어거스트 러쉬, 클래식, 플래툰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유명 애니메이션(라이온 킹, 로보트 태권브이, 하늘의 움직임

은 성) 등 9편이다.

이 기간 동안 매일 3회(10시, 오전 3시, 7시) 시간대별로 다른 장르의 영화를 상영해 폭넓은 관람이 가능하게 배려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 매월 둘째 화요일 '현장행정의 날' 운영 눈길

광양시가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 '현장행정의 날'을 운영,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장행정의 날'은 정현복 시장이 5일시장·교육현장·집단지원 발생지역 등 시민들의 생활과 연관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정현복 시장과 해당 부서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현장행정의 날'을 맞아 붉은 고로쇠나무 재배지역인 진상면과 중마동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현장행정의 날' 방문은 "붉은 고로쇠나무에서 생산되는 수액도 '광양

백운산고로쇠' 수액 용기를 이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농가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수액부품 전국 최초 지리적 표시를 등록한 '광양 백운산고로쇠' 수액이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해 명품 고로쇠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백운산 고로쇠나무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 시장은 '현장행정의 날'을 맞아 지난해 12월에 광양읍과 중마동에 설치된 주·정차 금지구역 대상지를, 올 1월에 광양읍 동·서천 꽃길 조성사업 대상지를 각각 방문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8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오산	571-7658
양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중곡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8604
진철	673-1600
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8511
동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여행'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이농** 이웃농민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 062 227-9600 | 신문구독 - 062 220-0551 | 여행구독 - 062 220-0550